

자신의 한계와 맞서 싸우는 산악인!

박·동·욱

글/안정미 기자



파키스탄의 가셔브롬 ॥ 정상에 선 대원들

인간은 외소하지만 자연은 넓다는 것 느껴

지 난 6월 11일 한국대학산 악연맹 가셔브롬 원정대의 부단장으로 선임되어 등반대와 함께 파키스탄으로 떠난 박동욱. 그가 이제까지 경험한 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다수 있다. 일본 북알프스, 대만 옥산, 네팔 쿰부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장탕 히말라야, 미국 요세미티 지역 해프도움, 말레이지아 키나발루, 파키스탄 가셔브롬 등.

아마추어 등산이 아니고 전문적인 등산의 경우 국내의 어렵고 위험한 산을 골라 간다. 설악산, 태백산, 한라산. 이런 산은 후배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일년에 한 번 씩은 간다. 설악산의 경우에는 암장이나 빙벽이 좋고 겨울에 눈이 많아 훈련용으로 적합하며 한라산의 경우에도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기 때문에 겨울에 갑자기 폭설이 많이와 눈이 많다. 이번 가셔브롬에 가기 전에 한라산에서 훈련했다.

그는 산과 자신과 싸우면서 경험한 것이 많다. '인간은 외소하지만 자연은 넓다. 그리고 또한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산이다. 그곳에서 인간이라면 느끼는 것이 반드시 있다.'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스포츠광

그 는 만능 스포츠맨이다. 각각의 스포츠가 모두 매력이 있다. 라켓볼, 스쿼시, 수상스키, 원드서핑, 스키, 골프.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한 운동은 모두 다 한다. 그의 집은 운동 장비기구점은 차릴 정도다. 너무 스포츠를 좋아한 나머지 치과도 스포츠센터에 얹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스포츠인 산을 즐기는 이유는 뭘까? 아무도 봉지 않은 흰 설원에서 숨이 막힐 듯 터져 나오는



한국대학산악연맹 가셔브롬원정대 부단장 박동욱
현재 양재동에서 치과를 경영중이다.

기쁨속에서 모든 세상이 자신의 영웅이 밑에 있다는 희열감을 느꼈을 지 모른다. 이제는 고산에서 느끼는 고통까지도 인내로 받아들이는 그는 오직 선택된 자만이 산을 오른다는 신념으로 한걸음 한걸음 발을 뻗놓는다. 세계 두 번째로 8천급 고봉 14개를 완등한 예지 쿠쿠츠카는 등산을 '인내의 예술'이라 표현했다.

이번 가셔브롬 등반을 함께 한 사람은 모두 19명. 하지만 짐꾼을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다. 보통 8천급 고봉을 차지하려면 필요한 시간은 두달이 넘는다. 그 시간동안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200명이 넘는 숫자가 이해된다.

산행에는 위험이 큰 만큼 많은 죽음을 잊어야

그 는 부인과도 함께 산행을 즐긴다. 부인과 함께 등반 할 때에는 집에 반드시 준비해 두고 떠나는 것이다. 마지막 떠나는 말, 유언장.

그는 산악회에 소속돼 여러 험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죽음을 보았다. 실제로 그가 사상자로 보도된 적이 두 번이나 있다. 한 번은 사고난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는데 사상자로 보도가 됐고 또 한 번은 눈사태를 피해 서울에 이미 도착했는데 사상자로 알려진 일이다.

서울치대산악회에서 활동하던 때에도 사고가 있었다. 두 명의 대원이 벼락을 맞았지만 다행히도 무사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업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가 실제로 죽음을 본 적도 여러번 있다. 86년과 87년 한국산악연맹회장을 맡았을 때에 재학생 회장도 죽었고 부회장도 죽었다. 재학생 담당 회장은 교대 여학생이었는데 암벽 등반시에 바위가 내려와 죽었고 부회장의 경우는 에베레스트 남서지역을 오르며 그곳이 등반 불가능하다고 판단, 모두 철수하는데 그만 못 내려가겠다며 베티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산행시에는 무엇보다도 재정과 등반대장의 통솔력이 중요해

8 천미터급 이상의 고봉을 오를 때에 물론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다. 한 번 산행하는데 억대가 넘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가셔브롬 산악의 경우 서울치대산악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고맙다는 말을 결코 잊지 않는다. 재정뿐만 아니라 등반대장의 강력한 리더십 또한 필요하다.

"대통령이 어떤 사람으로 뽑히느냐에 따라 나라가 달라지듯이 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니 오히려 산에서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죠. 멀쩡하던 애들이 갑자기 싸우기도 하니까요. 대

장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대원 전체의 컨디션도 파악해야 하고 산행시의 모든 상태를 알아야 하니까요."

산에 올랐을 때에는 말로 표현못할 기쁨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그것이 꼭 성취감만은 아니라고 표현한다.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땀 흘리며 노력해서 얻은 희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 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싸운다. 사람과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명예에 싸우기도 한다. 싸움 중에서도 값어치 있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 치과의사 박동욱. 그는 산과 싸운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산을 타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가 오늘도 치과진료를 마치고 다음 번엔 어느 산을 오를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가셔브롬 I의 전경. 캠프의 노란 텐트가 앙증맞게 보인다.